

JUNE 2024.
No. 268

INSS

전략보고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영향력 공작 전망 및 고려사항

김일기 책임연구위원
ikkim@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대남공작-대남영향력 공작 관계
- III.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통일전략
- IV.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 전망
- V. 정책적 고려사항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영향력 공작 전망 및 고려사항

I. 문제 제기

II.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대남공작-대남영향력 공작 관계

1. 대남·통일전략과 대남공작
2. 대남공작과 대남영향력 공작

III.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통일전략

1.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2. 북한의 대남전략 지속과 통일전략의 방법 변화

IV.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 전망

1. 대남영향력 공작의 목표 변화
2.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 중심의 대남영향력 공작 전개
3.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영향력 공작 활동 증가
4. 생성형 인공 지능(AI)을 활용한 영향력 공작 전개

V. 정책적 고려사항

1. 방첩 시스템 정비와 역량 강화 필요
2.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영향력 공작 대응 기구 설치
3.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4. 대남영향력 공작 원천 차단을 위한 북한 변화 추진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영향력 공작 전망 및 고려사항

저자 | 김일기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이후의 대남영향력 공작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대남·통일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공작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이후 대남전략(남조선혁명)은 지속되고 있으나, 통일전략(한반도 공산화)의 방법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통일의 방법으로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을 제시해 왔으나, 대남노선 전환 이후 비평화적 방법인 '무력 통일'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남노선 전환 이후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첫째, 대남영향력 공작의 목표는 남조선혁명의 여건 조성에서 무력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둘째, 통일전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이동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이 대남영향력 공작의 중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남영향력 공작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며, 이는 기존 영향력 공작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방첩 시스템 정비와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영향력 공작 대응 기구 설치,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대남영향력 공작 원천 차단을 위한 북한 변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남노선, 대남·통일전략, 대남공작, 대남영향력 공작, 북한

I 문제 제기

-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은 상대 국가에 대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전의 확산과 함께 전술적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까지 포함¹
 - 영향력 공작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전개되고 있으며 심리전, 정보전, 선전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 영향력 공작은 러시아의 美 대선(2016)과 프랑스 대선(2017) 개입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²
 -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計劃), 공자학당, 중국 음식점인 동방명주를 통한 영향력 공작이 알려지면서 주목
 - 중·러의 영향력 공작보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광범위하게 확산
-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대남·통일 전략과 대남공작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30일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의 대남노선 전환에 따라 영향력 공작의 변화 예상
 - 작년 말 북한은 대남노선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와 두 개의 국가관계’로 전환하고 ‘무력 통일’ 천명
- 본 연구는 대남노선 전환 이후 북한의 영향력 공작 전망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
 -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대남공작-영향력 공작 관계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통일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 전망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등으로 구성

1 <https://www.rand.org/topics/information-operations.html>

2 김소정,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개입 공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슈브리프』 49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II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대남공작-대남영향력 공작 관계

1. 대남·통일전략과 대남공작

-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당면목표인 ‘남조선혁명’과 최종목표인 ‘전(全)조선 혁명’ 즉 한반도의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 제8차 당대회(2021.1)의 「당규약」은 당면목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과 최종목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규정
 - ※ 당면목적은 대남전략(남조선혁명)을 의미하며, 최종목적은 통일전략(한반도 공산화)을 의미
 -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 실현’은 남조선혁명을 의미하며, 이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동일
 - ※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 대해 “나라의 민주주의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혁명”이라고 정의³
- 북한의 대남공작은 대남·통일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노선으로, 남조선혁명과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전개하는 공작 활동을 의미
 - (목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혁명과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주·객관적 상황 조성
 - (활동) △남조선 내 민주주의운동(반정부·좌익용공 세력 활동) 지원 △남조선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반(反)혁명역량 제거·약화 등⁴
 - (구도) 대남공작 → 남조선혁명 역량 강화 → 남조선혁명 → 공산화 통일

2. 대남공작과 대남영향력 공작

- 대남영향력 공작은 대남공작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우리 국민의 여론, 감정,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쳐 북한에 유리한 국민 여론 형성, 정부 정책 결정, 정치 구조 변화 등을 형성하려는 시도

3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1973), p. 431.

4 제성호,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양상과 전망,” 『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2017), pp. 164-166;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84-300.

- (목표) 대남공작의 주요 활동을 지원하여 남한 정권의 고립화와 남조선혁명을 통해 공산화 통일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
 - (활동) △국내외 친북 여론 형성 주도 △반미·반정부 여론조성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북한에 유리한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 (기법) △사회 지도급 및 유력인사 포섭(방북 초청), 포섭 인사의 제도권 진입 △가짜 정보·선동 소비집단 구축(SNS·언론 플랫폼 구축·장악하여 특정 담론, 가짜 정보 등 유포) △대안적 담론 전파로 왜곡 현실 세뇌(민족주의 담론, 프레임 전쟁) 등⁵
 - (공간) 영향력 공작의 최근 동향은 사이버 공간이 주 무대이지만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전방위적 영향력 공작 전개
 - ※ △지상파·케이블 방송 △신문·잡지·책 등 출판물 △강의·강연 △영화·다큐멘터리, 음악·미술 전시회 및 스포츠 경기대회, 친목회 등 활용
- 대남영향력 공작은 대남공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 기능
- 북한이 과거 풀뿌리 지하조직과 지하당 구축, 제도권 내 통일전선 구축 등에 대남공작 활동의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영향력 공작에 중점

5 김진하, “북한의 對한국 영향력 공작 및 한국의 대응전략,” 『전체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2023.5.25), pp. 30-35.

III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통일전략

1.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 김정은은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2023.12.30)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시정연설(2024.1.15)을 통해 대남노선을 전환
 - (전원회의) ‘대적사업에서의 단호한 정책 전환’과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데 대한 노선’ 제시⁶
 - (최고인민회의)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⁷
- 북한은 대남노선 전환과 함께 △대남기구 △남북 관계 관련 용어 △남북 관계 주요 상징물과 법규 등에 대한 정리·개편 단행
 - (대남기구 해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⁹ 등 대남 협상·대화 기구 해체
 - ※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짐¹⁰
 - (남북 관계·통일 용어 사용금지 및 삭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 동족 의미 표현 사용금지 △헌법에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¹¹
 - (상징물 철거 및 법규 폐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 동족·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민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노동신문』, 2024년 1월 16일.

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9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남정책전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 부문 일군들의 쫓기모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13일.

10 “北 통일전선부, ‘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대남사업보다 심리전 중심으로”, 『News1』, 2024/05/20, <<https://www.news1.kr/articles/?5420556>> (검색일: 2024년 5월 20일).

1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죽끼리, 평화통일 등을 상징하는 건축물 철거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 등 폐지¹²

2. 북한의 대남전략 지속과 통일전략의 방법 변화

-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인 ‘남조선혁명(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 통일전략의 목표인 ‘한반도의 공산화’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이 대남노선 전환을 선포했던 작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남·통일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우리 사회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식 역시 변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문제 역시 “미국의 식민지줄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¹³
- ※ 반면,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정부 수립 시에는 통일문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대남노선 전환 이전에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전조선 혁명)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를 제시¹⁴

- ※ (평화적 방도) ①남한 정부가 수세에 빠져 통일에서만 살길을 찾아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수락하는 경우 즉,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수락하는 경우 ②남한에 반제자주적인 정권이 수립되거나 중립화하는 경우 ③남조선혁명이 승리할 경우
- ※ (비평화적 방도) ①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을 몰아내는 ‘정의의 전쟁’ 수행을 통해 통일 ②미제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 미제를 축출하고 전쟁을 통해 통일 ③남한에서 혁명 정세가 성숙되어 남한 인민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한 인민들과 북한이 공동으로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고 무력으로 통일
- 북한은 통일의 방법으로 평화적·비평화적 방법을 모두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며, 현실 가능한 통일의 방법으로 평화적 방법의 세 번째, 즉, 남조선혁명이 일어난 후 남북한의 ‘전략적 배합’¹⁵에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4년 2월 8일.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14 유성욱, “북한 대남통일전략의 추진구도와 전개양상,” 『전략연구』 통권 82호 (2020), pp. 14-16;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참조.

15 ‘전략적 배합’이란 북한 노동당과 민주역량으로 위장한 남한의 중북세력이 이면 합의에 의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 광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 55.

의한 통일 추진 선호¹⁶

※ 남조선혁명과 인민정권 수립 → 연방제 실시 → 전조선 통일 과정을 의미

- 대남노선 전환 이후 북한의 통일방안은 평화적 방법은 폐기하고 비평화적 방법만 존속하는 것으로 변화
 - 그동안 평화적 통일방도를 위해 추진해 왔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노선은 폐기하고, 핵 무력에 기반한 무력 통일을 의미하는 ‘남조선 영토 평정’ 추진을 선언
 - ※ (전원회의)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
 - ※ (최고인민회의) 한반도 전쟁 발생 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
 - 북한이 대남노선 전환 이후 추진한 대남기구, 남북 관계 관련 용어 및 주요 상징물에 대한 정리·개편 등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과 연계된 것으로 ‘평화적 통일방도’에 해당
-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남조선혁명’은 비평화적 방법의 세 번째인 ‘남한에서의 혁명 정세 성숙’과 연관되어 있어 지속적 추진 예상

16 유성욱, “북한 대남통일전략의 추진구도와 전개양상,” p. 16.

IV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 전망

1. 대남영향력 공작의 목표 변화

-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는 ‘남조선혁명’을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무력 통일’에 기반한 통일로 전환함으로써, 통일문제를 중장기적 목표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
 - 대남공작의 목표는 ‘남조선혁명의 주·객관적 조성’에서 무력 통일 기반 확보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으로 무게 중심 이동
- 대남영향력 공작 역시 남조선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에서 무력 통일을 위한 여론 확보와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
 -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남조선혁명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남공작의 강 조점을 변화
 - 북한이 과거 대남공작 중 지하당 구축과 간첩 남파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영향력 공작에 중점
 - 대남영향력 공작은 무력 통일 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우리사회 혼란 △친북·종북 세력 형성 (우호 세력 확보, 정치사상 의식화 등) △北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사기술 절취 △南 군사 역량 관련 정보 수집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

2.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 중심의 대남영향력 공작 전개

-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이후 통일전선부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으로 전환되고 업무 범위가 축소
 - 대남노선 전환 이전의 통일전선부는 △남북회담 △해외교포 공작 및 조총련 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사업 등 대남전략·전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남부서이자, 대외적으로는 통일 외교기관의 역할 수행¹⁷
 - 대남노선 전환 이후 통일전선부의 업무 범위가 △외무성 폐지 △해외교포 공작 및 조총련 사업 → 노동당 국제부 이관 예상 등으로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사업으로 축소된 것으로 예상

17 김일기·김호홍,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p. 70-71.

- ※ 북한은 1975년 11월 통일전선부의 전신인 문화부를 폐지하면서, △조총련 및 해외동포 사업은 노동당 국제부 △남북대화 등의 회담 사업은 외교부 △우회공작 등 대남공작 사업은 연락부(문화교류국)로 이관
- 대남노선 전환 이후 출범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은 대남영향력 공작 등 대남공작 사업에 특화된 조직으로 예상
 - 통일전선부의 대남 심리전 즉, 대남영향력 공작과 문화교류국¹⁸의 정통적 대남공작 활동이 결합된 조직으로 추정
 - ※ 문화교류국은 △간첩 남파 △공작원 밀봉교육 △한국 내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공작 △해외 공작 등 정통적 정보·공작 업무 담당¹⁹
-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던 평양방송과 우리민족끼리 등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을 폐쇄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력 공작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를 통한 영향력 공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북한의 영향력 공작 패턴은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우리 국민 접촉·포섭·지시 → 지하조직 구축 및 확대 또는 기존 조직 침투 →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영향력 공작 활동의 방향으로 전개²⁰

3.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영향력 공작 활동 증가

-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나, 최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영향력 공작 활동 증가
 -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 공작은 대면 접촉을 통한 특정 대상을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한적
 - 사이버 공간의 온라인 영향력 공작은 비대면 접촉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 최근 북한은 대남영향력 공작의 도구로 온라인 미디어,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

18 문화교류국은 2012년 말 내각에서 통일전선부 산하로 이동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김정에는 직보하는 독립적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짐.

19 김일기·김호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pp. 80-83.

20 김일기, “북한의 대(對)남 영향력 공작 특징과 실태,” 『전체주의 국가의 대(對)한국 영향력 공작 실태』, 한국세계지역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2023), pp. 75-77.

-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영향력 공작은 다양한 형태 시현
 - △北 운영 사이트 내용 ‘퍼 나르기’를 통해 사이버상 친북세력과 반정부 세력 확산(대통령 비난, 우리 국정 현안 비난·왜곡, 北 체제·김정은 미화, 반미 투쟁 등) △우리 국민 주민등록번호 도용하고 포털사이트 댓글 달기와 공개 게시판·토론방·블로그 등을 직접 개설하여 조작된 정보와 유언비어 흑색선전 등을 확산, 국론분열과 사회 혼란 선동 △北 운영 SNS(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활용 △사이버 테러를 통한 우리 사회 혼란 공작(부실 대응, 심리적 공황) 등²¹
- 북한은 대남노선 전환으로 대남영향력 공작에서 공식적 채널과 국가통제 채널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연계 채널을 중심으로 영향력 공작 전개
 - 사이버 영향력 공작의 생태계는 ①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s) ②국가통제 채널(State-Controlled Channels) 그리고 ③국가 연계 채널(State-Linked Channels)의 세 가지 형태²²
 - ※ ①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국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대사관 등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채널 ②국가-통제 채널: 국가행위자와 직접 연계된 미디어 채널(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③국가-연계 채널은 국가행위자와 명확한 또는 공식적 연계는 없지만 다양한 국가기관(주로 정보기관)의 은밀한 사주를 받아 운영되는 온-오프라인 채널

4.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향력 공작 전개

- 생성형 AI를 활용한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기존 영향력 공작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
 - 생성형 AI는 고품질의 텍스트 생성과 이미지 합성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악용한 사실 왜곡과 조작 용이
 - 생성형 AI가 대규모의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SNS가 이를 전파하는 강력한 통로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

21 유성욱, “북한 대남통일전략의 추진구도와 전개양상,” pp. 36-38.

22 윤민우, “중·러의 해외 선거 개입과 영향력 공작,” 『월간조선』 2023년 11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311100044>> (검색일: 2023.11.10).

■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영향력 공작 전개 예상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력 공작과 함께 세대, 계층, 직업별로 구분하여 전개하는 맞춤형 영향력 공작 전개 가능
- 과거의 일방적인 단순 선전 선동이나 심리전과는 다른 개인별 맞춤형 영향력 공작 전개
-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활동 성향 분석(Psychographic Profiling)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Microtargeting) 선전 선동 전개
- 생성형 AI 도입으로 북한의 대남 개인별 맞춤형 영향력 공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V 정책적 고려사항

1. 방첩 시스템 정비와 역량 강화 필요

-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이후 대남영향력 공작이 활발해질 것을 예상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첩 체계 구축 필요
 - 우리의 현실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국정원, 방첩사, 경찰, 검찰 등 방첩 기관 개편과정을 통해 방첩 역량 약화 현상 발생
-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방첩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역량 강화 필요
 -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전은 단순한 수사권 이전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가 방첩 차원에서 대승적 접근 필요
- 현재의 법률하에서는 대공 수사권 이전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공 정보·수사시스템 구축 추진 필요
 -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대남공작 특수성, 대공 수사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대남영향력 대응 등 대공 수사 능력 의문시
 - 북한의 무력 통일 추진에 따른 대남영향력 공작 및 대남공작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때, 이 분야 대응에 특화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추진이 필요

2.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영향력 공작 대응 기구 설치

-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사이버 공격을 동반하거나 서로 연결된 행위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접근
 -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북한 및 해외의 영향력 공작과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제도 개선 제시²³

23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2024.2), p. 22.

- 대남영향력 공작의 주요 무대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 확보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 기준법으로서 「사이버 안보법」 제정 필요
 - 「사이버 안보법」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확립 △사이버 관련 법의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사이버안보 활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역할 수행
 - 「사이버 안보법」이 제정될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론 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 등을 유발하는 북한 및 해외의 영향력 공작 대응에 효과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
-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영향력 공작 대응 기구를 벤치마킹하여 ‘영향력 공작 컨트롤 타워’ 설치
 - 미국은 국가정보장실(ODNI) 산하 영향력공작대응센터(FMIC)를 통해 가짜뉴스 및 선거 개입 등 영향력 공작에 대응
 - 우리의 경우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이 대남공작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영향력 공작 대응 기구 설치 필요

3.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을 비롯한 우리 사회를 향한 영향력 공작은 공작거점과 공작기법 진화 등으로 인해 독자 방어역량만으로는 한계
- 대남영향력 공작을 비롯한 허위·조작정보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및 다자주의 공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보편적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국가로의 면모 강화²⁴
- 한미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집단 대응 메커니즘 구축 필요

4. 대남영향력 공작 원천 차단을 위한 북한 변화 추진

-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화를 통한 대남·통일전략과 대남공작 및

24 신범식,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략”(영향력 공작)과 시사점,” 『전체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2023.5.25), p. 24.

영향력 공작 포기를 유도

- 북한의 변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와 인권 보장 등을 목표로 추진
- 북한 변화를 위한 활동은 북한 내부의 사이버 공간이 폐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중심으로 정보 유입 추진
 - 북한 외교관 및 해외 거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북한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

참고문헌

-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김소정,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개입 공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슈브리프』 49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 김일기, “북한의 대(對)남 영향력 공작 특징과 실태,” 『전체주의 국가의 대(對)한국 영향력 공작 실태』, 한국세계지역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2023).
- 김일기·김호홍,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김진하, “북한의 對한국 영향력 공작 및 한국의 대응전략,” 『전체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2023.5.25).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2024.2).
- 신범식,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략’(영향력 공작)과 시사점,” 『전체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2023.5.25).
- 유성욱, “북한 대남통일전략의 추진구도와 전개양상,” 『전략연구』 통권 82호 (2020).
- 윤민우, “중·러의 해외 선거 개입과 영향력 공작,” 『월간조선』 2023년 11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311100044>> (검색일: 2023.11.10).
- 제성호,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양상과 전망,” 『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2017).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973).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노동신문』, 2024년 1월 16일.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남정책전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 부문 일군들의 쫓기모임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13일.
- “北 통일전선부, ‘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 ‘대남사업보다 심리전 중심으로,’” 『News1』, 2024/05/20, <<https://www.news1.kr/articles/?5420556>> (검색일: 2024년 5월 20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4년 2월 8일. <https://www.rand.org/topics/information-operations.html>

Abstract

Prospects for North Korea's Shift in South Korean Policy and Influence Operations

Kim, Il-G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influence operations toward South Korea following its policy shift and proposes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North Korea's influence operations are primarily psychological warfare designed to achieve strategic unification goals with South Korea. While the strategy for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Revolution) remains unchanged, the method of unification (Korean Peninsula communization) has evolved. North Korea has traditionally used a combination of peaceful and non-peaceful methods, but has now adopted a solely non-peaceful approach known as 'unification by force'. The anticipated changes in North Korea's influence operations include: firstly, a shift in focus from creating conditions for the South Korean revolution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unification by force; secondly, the '10 Bureaus of the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will assume a central role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e Unification Front Department; thirdly, an increased reliance on cyberspace activities; and fourthly, the intensification of generative AI usage in influence operations, presenting a severe and unique challenge. Based on these expect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s policy measures include overhauling and improving counterintelligence systems, enacting cybersecurity legislation, establishing organizations to counter influence operations, and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ll with the goal of proactively mitigating North Korea's influence activities.

Keywords: Policy towards South Korea, Policy towards South Korea and Unification Strategy,
Operations against South Korea, Influence Operations against South Korea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E 2024.
No. 268